

한국단편경쟁 · 지역공모 선정작 공개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극영화 23편 · 다큐멘터리 3편 · 실험영화 3편 · 애니메이션 1편 총 30편 선정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한국단편경쟁 및 지역공모 선정작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심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극영화 23편, 다큐멘터리 3편, 실험영화 3편, 애니메이션 1편 등 총 30편을 최종 선정했다.

한국단편경쟁 예심에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상영작 〈럭키, 아파트〉의 강유기 감독, 영화평론가이자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상영작 〈늦은 산책〉을 공동 연출한 바 있는 김병규 감독,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감독상 수상작 〈트랜지트〉를 연출한 문혜인 배우 겸 감독,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부문 수상작인 〈내가 사는 세상〉 이후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최창환 감독 등 전주국제영화제를 거쳐 간 영화감독 4인과 김보연 서울아트시네마 프로그래머 겸 영화평론가, 다수의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정지혜 영화평론가, 전주국제영화제 분석 프로그래머까지 총 7인이 참여했다.

심사위원들은 올해 한국단편경쟁 출품작들에 대해 “영상을 제작하는 일이 몹시 당연하게 여

겨지는 영화제작 환경 속에서 ‘단편영화’를 만드는 실천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재고하게 됐다”고 평했다.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두려움과 강박을 각자의 방식으로 돌파하는 작업에 주목했다”며, 선정작 30편에 대해서는 “카메라를 든 주제와 세계 사이에서, 완성과 미완성 사이에서 협상하고 타협하고 토론하며 두 가지 방향성을 나란히 포착하고자 한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북 지역에 주소를 둔 감독, 제작자 혹은 학교 재학생의 작품이나 전북 지역 로케이션 비중이 50% 이상인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공모에는 단편 39편, 장편 7편 등 총 46편이 출품된 바 있다. 이중 단편에는 송에스터, 임연주 감독의 〈갈비〉, 소지인 감독의 〈땀〉, 김혜진 감독의 〈불속〉, 노희정 감독의 〈자궁메이트〉, 장편에는 김태휘 감독의 〈빈집의 연인들〉로 총 5편이 최종 선정됐다. 5편 중 〈불속〉은 한국단편경쟁, 나머지 4편은 코리아시네마로 상영된다.

지역공모 심사에는 전주를 기반으로 영화 커뮤니티와 영화문화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이

하늘 무명씨네 대표,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상영작 〈유령국〉과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아시네마 상영작 〈서신교환〉의 김현정 감독, 전주국제영화제 분석 프로그램 매거가 참여했다.

지역공모 출품작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다양한 주제와 형식이 돋보였으며, 지역 창작자들의 꾸준한 참여와 실험적인 시도가 인상적이었다”고 평했다.

이어 선정된 5개 작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가족·사회적 틀을 벗어난 새로운 관계 쌓기를 시도했다. 특히, 여성의 몸과 감정, 선택을 전면에 내세운 이야기들이 돋보이며, 때로는 도발적으로, 때로는 담담하게 경계를 확장해 나가는 흐름이 인상적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지역공모에서는 창작자들의 고유한 색채와 탐색을 통해 지역 영화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역공모 선정작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한국단편경쟁 상영작 30편과 지역공모 상영작 5편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통 도자 속에 피어나는 청년 감성’

부안청자박물관, 제1회 부안 상감 도자작품 대학생 공모전 개최

부안군은 전국 최초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1회 부안 상감 도자작품 대학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명품 고려 상감청자의 메카인 부안에서 상감 도자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청년(대학생) 작가들의 창의성이 반영된 쓰임새 있는 도자작품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모전은 도자기에 관심 있는 전국의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상감청자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출품하면 된다.

서류 접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4일까지이며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실물 심사를 진행한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하게 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선정의 상금이 수여되고 수상작은 부안청자박물관 기획전시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전국 최초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자작품 공모전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전통 도자예술의 현대적 계승과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기회로 부안 고려 상감청자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조명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작품과 인재들은 앞으로 부안 청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젊은 도예가들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청자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부안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자 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할 전망이다.

부안은 고려시대 상감청자의 주요 생산지로 유천리와 진서리 일대에 약 100여기 이상의 가마터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부안청자박물관은 청자 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자지기’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한 부안군문화재단 주관의 ‘2024 부안 공예주간’ 행사 등을 통해 고려 청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통 한복 입고 남원 춘향제 즐겨요”

다채로운 한복 체험 프로그램 마련

남원 춘향제전위원회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를 주제로 개최할 제95회 춘향제에서 전통 한복을 입고 즐기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한복 체험과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제전위원회는 전통 한복을 갖춰 입고 방문객들을 맞이하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계획이다.

또한 방문객들 역시 한복을 입고 행사장을 자유롭게 거닐며 전통문화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으며, 제전위는 한복착용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포토존과 기념 촬영 이벤트를 준비해 특별한 순간을 기록할 기회를 제공한다.

광한루원에서는 △남원 생산 찾이를 이용한 다도 체험 △보물 제281호인 광한루각에서 진행되는 명인·명장 공연관람 △버나돌리기 및 축방울 체험 등을 연계한 공연프로그램 등 다



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이 진행,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로 춘향제의 인물이 되어 즐기며 춘향제의 특별한 순간을 더해줄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시립교향악단, 제162회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회’ 개최

싱크럽과 생동감 넘치는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4월,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제162회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회’를 갖는다.

오는 4월 3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새로운 얼굴들이 관객들에게 멋진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올해 군산시립교향악단 전국 협연자 오디션에 최종 합격한 바이올리니스트 이근화가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며, 객원 지휘자 오디션에 합격한 강한결이 ‘슈만 교향곡 1번’으로 관객들에게 힘찬 지휘를 보여줄 계획이다.

바이올리니스트 이근화는 독일 뮌헨 국립음대 학사, 석사,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한 실력과 음악가

로 화려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가진 소리가 매력적이다.

객원지휘자 강한결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지휘를 전공하였으며,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지휘 석사과정을 이수했다.

경기필하모니, 인천시향이 주최하는 차세대 지휘자 오디션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선발되어 공식 데뷔 무대를 가진 후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서울시향 마스터클래스에 선발되는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군산시립교향악단 제162회 정기연주회는 전석 유료 5,000원으로 만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오는 4월 1일까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다담’ 26일 시인 나태주 초청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차와 이야기가 함께하는 국악콘서트 ‘다담(茶談)’을 오는 26일 오후 7시에 예음헌에서 갖는다.

‘다담’은 국악과 인문학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로, 전통차를 마시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국악 연주를 통해 감성을 더하는 국립민속국악원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3월, 5월, 8월,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올해부터는 직장인 관객들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공연 시간을 저녁 7시로 조정했다.

3월 첫 무대에는 ‘꽃’의 시인 나태주가 이



아기 손님이며, ‘시가 사람을 살린다’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시를 통해 전하는 삶의 이야기와 위로의 메시지를 나누며,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감성적인 연주가 따뜻한 감동을 더 할 예정이다.

이날 연주될 강상구 작곡의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은 해금 독주로 발표되어 해금 음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해금(장지연)과 가야금(윤이나) 이중주로 편곡되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순간들을 떠올리고 상상하는 시간을 선사한다.

‘다담’은 회당 50여 명 한정으로, 참가 신청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 카카오톡 채널(국립민속국악원 친구 추가) 전화(063-620-2329)로 예약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문화관광재단, ‘군산 문화 배달’ 사업 시민 평가단 모집

군산문화관광재단은 ‘군산 문화 배달’ 선정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시민 평가(모니터링)단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 평가(모니터링)단으로 선정되면 군산 문화 배달 사업의 주요 행사 및 사업 등을 직접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이에 따른 활동비를 회당 5만원(최대 2회) 지급할 계획이다.

모집 인원은 모두 6명이며, 군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4월 첫째 주 중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되며, 발대식은 4월 둘째 주에 진행된다.

참여 희망자는 군산문화관광재단 누리집(<https://gunsanmf.or.kr/>)에서 지원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csy6510@gunsanmf.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